

| | | | | |
|--|--|--|-------|--|
| 제 목 | 국 문 | VDT 작업자에서의 근막동통 증후군의 평가를 위한 동통, 압통유발점 및 Constant 견관절 기능 평가와의 상관관계 | | |
| | 영 문 | The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pain or number of trigger points and Constant shoulder function test in myofascial pain syndrome among VDT workers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유현주 ¹ , 구정완 ² , 이원철 ² 1.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영 문 | Hyun Ju Yoo ¹ , Jung-Wan Koo ² , Won Chul LEE ² 1. Dep. of Occupational Medicine, Grad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2. Dep.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 | |
| 분 야 | 환경 | 발 표 자 | 일반 회원 | |
| 발표 형식 | 포스터 | 발표 시간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 <p>1. 연구 목적</p> <p>사무기계자동화에 따른 영상단말기(VDT)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건강장애의 변화가 있어 왔고 이에 따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VDT 작업자에서 나타나는 건강상의 장애는 하지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형태에 의해 상지부위의 정적 또는 동적부하가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근육이나 인대에 국소적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목, 어깨, 손 등에 만성적 피로, 동통, 근부종 등이 나타난다. 또한 두통, 정신집중곤란, 정서불안 등의 정신증상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대한 장애로도 나타난다.</p> <p>VDT작업자들의 이런 작업형태의 특징 때문에 목, 어깨, 팔, 손 등에 광범위한 동통(Aarst, Legg)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또는 myofibrositis, myofasciatis, fibromyositis, myogelosis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p> <p>근막동통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병력청취, 이학적검사, 특히 촉진을 통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질환의 중증도를 대변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상의 장애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Constant 등(1987)은 환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동통)과 객관적인 지표(근력 및 관절운동범위)를 포함하는 견관절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 방법이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VDT작업자와 대조군에서 Constant의 평가법을 이용하여 견관절의 기능을 측정하여 압통유발점 유무 및 개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동통, 압통 유발점의 개수 및 Constant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근막동통 증후군 환자들의 객관적 기능평가에 대한 이 검사법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1) 대상</p> <p>창원시에 소재하는 7곳의 은행 및 병원기관의 종사자 179명에 대하여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최근 1-2주일 이내에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31예를 제외한 148명의 남녀 중에서 1일 VDT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79명을 VDT 사용군으로, VDT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1일 30분 이하인 69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p> | | | | |

(2) 방법

대상자의 성별, 나이와 같은 일반적 사항과 근무시간, 1일 작업시간, 1회 작업지속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견관절 기능검사는 Constant가 제안하였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통증, 일상생활동작, 관절운동범위, 근력 등의 항목으로 총점은 만점이 100점이 되는 데, 이중 통증항목은 환자가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15점으로 하여 통증정도에 따라 점수를 나타내고, 일상생활 동작은 크게 두가지 항목으로 다시 나누어, 우선 업무수행 및 여가활동 가능 여부와 수면상태 등의 활동정도들의 항목들에 대해 조사하여 점수를 구하고 두 번째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손의 위치를 신체부위와 비교하여, 즉 팔을 머리위까지 들어서 수행하는 업무들에서 별다른 불편감없이 할 수 있을 때를 10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불편감없이 수행할 수 있는 높이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관절운동범위는 전방굴곡, 외전, 대회전, 외회전범위를 측정하여 10점을 정상으로 하여 총 40점으로 나타내었다. 검사시간은 하루 중 VDT 작업에 의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오후 시간에 실시하였다. 국소적 압통과 결절(taut band)를 보인 경우를 압통점(trigger point)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압통점 측정은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극하근, 대원근, 대흉근, 상각근, 견갑거근, 극상근 등 견관절 양측 16개 근육에서 손의 우성측과 열성측을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여 검사하였다.

3. 연구결과

1) 견관절 동통 유병율은 VDT작업군에서 중등도 이상인 경우가 57예(72.1%)로 대조군의 6예(8.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 VDT작업군내에서 우성측이 압통유발점이 있는 근육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51예(60.9%)로 열성측의 14예(17.8%)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우성측에서 14예(17.8%)로 VDT작업군과 대조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3) VDT 작업군에서 압통유발점 수가 많을수록 constant 견관절 기능 검사의 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견관절 기능검사시 압통유발점이 있는 근육의 수가 많을수록 견관절 기능의 저하가 심하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4. 고찰

결론적으로 견관절 기능검사와 동통 정도 및 압통유발점이 있는 근육의 수와 비교하여 보면 동통이 심할수록, 압통유발점이 많을수록 견관절 기능검사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압통유발수가 많을수록 견관절 기능의 장애가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막통증후군이 의심될 때 견관절 기능검사를 시행하면 전반적인 견관절의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병의 중증도 및 추적검사시 좀 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